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작. 유혜율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희곡우체통
극작가전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작 유혜을

연을 이은준

일정 2020년 12월 3일(목) - 12월 20일(일)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본 공연은 국립극단 상시투고제도 '희곡우체통'을 통해 발굴된 창작 희곡으로
2019년 낭독회에서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20년 12월 3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작가의 글

여전히 나쁜 세상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행동하면 벽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은 사라지는데 벽은 더 많은 곳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슬픔은 실패의 징후이거나 결과일 뿐이어서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너그러워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세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시절에, 이런 세상을 만든 세대의 일원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변명하지 않고 지금 여기의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썼습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찾았을까, 현장을 지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김수영의 시를 감히 가져와도 되는 것일까...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치고 다시 썼습니다.

쓰고자 한 것과 쓴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되는 부족한 작가에게는 버거운 과제와 과정이었습니다. ‘싸우라는 말이,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고’ 모두 불안한 얼굴로 이제 뭘 더 해야 하느냐고, 더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시대에 대해 단 하나의 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한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략과 투지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연극이라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창가에 찾아온 새와 같은 시를 읽는 간절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답을 알 수 없어도 다시 질문하고 상상하고 모색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영의 시가 아니었다면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인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외로움과 비애를, 끝까지 버릴 수 없는 마음을, 마지막까지 반항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치열함을 모두 김수영의 언어에서 빌려왔습니다. 그의 시에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사유의 불빛에 의지한 일이 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편의 연극이 작은 호수에 번지는 파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흔들지 못하고 사라져도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한 해 보자고 다짐할 뿐입니다.

연극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국립극단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고 가능성을 믿어주는 마음 덕분에 희곡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물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 함께 한 모든 배우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대본을 살아 있게 만들어준 이은준 연출가와 배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재능이 함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드물고 귀한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 유혜율

주요작품

연극 데뷔

그림책 『내일의 정원』『엄마와 복숭아』『사막의 왕』



당신이, 또 우리가 각자의 밤을 건너야 할 시간

진행·정리
김주연 연극평론가

국립극단 희곡우체통을 통해 소개된 유혜을 작가의 희곡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는 김수영 시인의 언어를 빌어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시대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각 인물을 통해 그들이 속한 세대와 사회의 단면을 그려내고 있는 이 작품의 연출은 그동안 꾸준히 동시대 사회에 대한 힘 있는 시선을 보여준 이은준 연출이 맡았다. 막이 오르기 전, 연출의 생각을 미리 들어본다.

Q.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는 작가의 첫 희곡 데뷔작이기도 한데, 처음 대본을 읽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대본에 김수영 시인의 시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널리 알려진 시와 잘 알려지지 않은 시들이 섞여 있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이 시들이 과연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졌고, 다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시대, 다른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그리고 삶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작품 속에 김수영의 시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수영의 시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A. 저는 김수영의 시대를 함께 했던 이들이 느꼈던 그 뜨거움이 지금도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염병이 촛불로 바뀌었듯이,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도 그의 시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수영 시인은 막걸리집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김수영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시대를 살면서 또 스스로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런 점이 인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김수영 시에는 설령탕집, 기름덩어리, 담뱃진 냄새 같이 삶에 밀착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시어들이 참 좋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삶 속에 버티고 서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시인이란 생각이 들어요.

Q. 형진, 윤기, 준수 등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하나의 개인이면서 또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이 있는지요?

A. 저는 사실 586세대인 형진과 20대인 준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세대예요. 한 마디로 ‘긴 세대’라 할 수 있죠. 어쩌면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 온 것 같기도 해요. 양쪽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서 양쪽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세대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대 간의 이야기로 볼 수는 없고 그냥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겨져요.

Q.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는 여백을 통해 관객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품이다 보니, 구체적인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연출로서는 고민이 좀 될 듯합니다.

A. 확실히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세세한 디테일들을 찾아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원하게 뿜어나가는

추사체가 아니라 세밀화 같은 필치랄까요. 하지만 배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고, 배우들의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비어있는 공간도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형진과 영미는 일부러 그 세대에 속하는 배우들로 캐스팅했는데, 비슷한 세대의 인물을 연기하다 보면 배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도 덧붙여져서 또 다른 결을 지닌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연출로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이 작품의 제목이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인데, 저는 ‘당신’이 형진이나 윤기, 준수 같은 극중 인물이나 관객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밤을 건너야 결국 또 다른 날이 오고 새 날이 열리는 거니까요. 작품을 보면서 각자의 밤, 그리고 타인의 밤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출 이은준

주요작품

<귀국선, 어느날><불씨><울구>

<분노 하세요!><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정의의 사람들><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말>

<괴벨스 극장><도장 찍으세요>

<세일즈맨의 죽음><택배 왔어요><네발자전거>

<불씨><속살> 외

수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울구>

2016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괴벨스 극장>



줄거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지도 몰라.”

시민단체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형진. 사회운동으로 대학시절을 보낸 형진이지만 이젠 고리 타분한 기성세대가 되었다. 대학 동기 윤기의 기일을 맞아 친구 현, 시형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된 형진은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딪치는 자신을 자책한다. 애를 쓰고 살았음에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 휘청이는 형진에게 윤기가 찾아와 김수영의 시를 읊어준다. 끝없는 어둠 속에 가라앉던 윤기를 위로해준 언어를. 어두운 창가에 찾아온 새와 같은 시를.

“Perhaps life consists of things we can't discard rather than things we choose for ourselves.”

Hyung-jin serves as vice president of a civic group. He used to be a social activist during his college days, but now he is yet another member of the older generation. On the anniversary of the death of his college classmate Yun-gi, he goes out for a few drinks with his friends Hyun and Si-hyung; he reproaches himself for his failure to keep up with the world. Then, as Hyung-jin stumbles under the weight of the knowledge that his efforts and hard work have yielded nothing, Yun-gi appears and recites Kim Su-Young's poetry for him—words that once consoled Yun-gi sinking into endless darkness, like a bird landing by a dark window.



출연진

형진

김수현 Kim Soo-Hyun

연극 <킬로로지><진실X거짓><백치><스테디 레인>
<데스트랩><헬우><피카소 훔치기><타바스코>
<소뿔자르고주인오기전에도망가선생><리차드 2세> 외

수상 2008 제1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남자신인연기상
2008 제13회 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08 제45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영미, 행인

김정은 Kim Jung-Eun

연극 <화전가><1945><메디아><미스 줄리><로베르토 주코>
<아버지><한국인의 초상><토막><이영녀><3월의 눈> 외

수상 2011 제4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연기상
2009 제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
2008 제45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윤기

김규도 Kim Gyu-Do

연극 <엔드게임><최후만찬><말뚝의 눈물>
<미안합니다, 픽션입니다><파티-그로테스크 챔버 앙상블>
<파국> <관객모독><타이타스>
<과학하는 마음3-발칸동물원 편> 외

수상 2016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신인연기상





시형, 행인

원춘규 Won Choon-Gyu

연극 <기억의 시간><분노 하세요!><울구><귀국선, 어느 날>
<지독한 사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폐도적><베니스의 상인>
<길 떠나는 가족><미친 햄릿> 외



현, 경찰

안병식 Ahn Byung-Sik

연극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날아가 버린 새><나는 살인자입니다>
<모든 영광은><말피><브라질><피와 씨앗><술취한 포틴브라스>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20세기 건담기> 외



드랙퀸

김은우 Kim Eun-Woo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페스트><분노 하세요!><해방의 서울>
<괴벨스 극장><아끼니꾸 드래곤><백돌비가><만주전선>
<오레스테스><햄릿> 외

수상 2020 제56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보수청년, 술집 사장, 행인

박상훈 Park Sang-Hoon

연극 <새들의 무덤><듀랑고><네가 서성일때><민중의 적>
<꿈><언덕을 오르는 마삼식을 누가 죽였나>
<눈뜨라 부르는 소리가 있어><합석전후> 외



정연

고애리 Go Ae-Ri

연극 <Memory in dream><어둠상자><미안합니다, 픽션입니다>
<B CLASS><훈향><소><장수상회><그리스의 여인들 안티고네>
<왕과 나> 외



준수, 행인

이원준 Lee Won-Joon

연극 <2호선 세입자><연애플레이리스트><망원동 브라더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아단성><죄와 벌> 외



영훈, 행인

박희민 Park Hee-Min

연극 <분노 하세요!><울구><불씨><귀국선, 어느 날>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로미오와 줄리엣><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데로> 외

회곡우체통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는 지난해 국립극단 회곡우체통에서 처음 만난 작품입니다. 2018년에 신설돼 어느덧 삼 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숨어 있는 우수 회곡을 발굴하여 창작극 레퍼토리로 개발하기 위한 온라인 상시투고 제도입니다. 익명 투고를 기본으로 하며, 낭독회에 초대된 회곡은 배우, 관계자, 관객들이 함께하는 낭독 공연으로 개최해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일 년의 시간 속에 낭독했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음 해에 국립극단이 제작, 공연할 작품을 찾습니다.

2019년에는 회곡우체통에 접수된 총 186편의 작품 중 8편의 회곡이 낭독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중 유혜율 작가가 쓴 <사랑의 변주곡>은 8차 낭독회 초대작으로 11월 18일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2020 회곡우체통 극작가전으로 선정돼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관객을 만납니다.

선정평 | “586세대인 늦깎이 유혜율 작가가 쓴 이 작품은 강렬한 극성이나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을 담백하게 들여다보는 작가의 시각과 언어가 신뢰를 주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떠나 복잡한 결을 가진 인물들이 호소력 있었고 과거와 동시대, 시와 현실이 대비되는 섬세한 듯 섬세한 구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 작가는 강요하지 않고 우리 시대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비록 지금 한국 연극의 중심 관객층이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의 트렌드에서 벗어난 <사랑의 변주곡>은 한국 연극의 지평을 보다 넓혀 주리라 기대합니다.” / 김명화 우체국장



2019 회곡우체통 낭독회(김명화 우체국장, 유혜율 작가) ©김신중



국립극단에서 동시대의 화두를 탐구하는 회곡을 보다 많은 관객 및 독자들과 나누고자 회곡우체통 낭독회에서 소개한 작품들을 모아 회곡집으로 출간합니다. 극장에 흐르는 시간에 이어 회곡을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대디자인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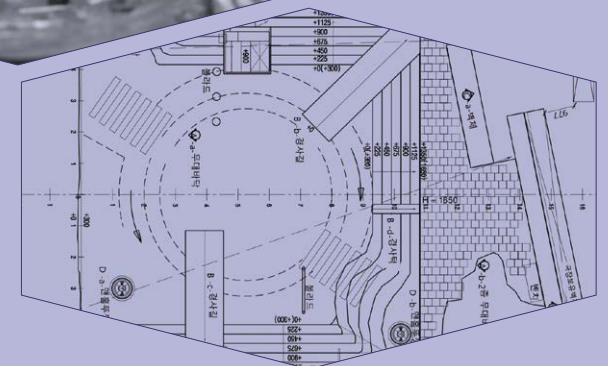
서로의 삶이 만나는 곳, 교차로.

디자인 회의를 통해 우리는 무대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세대와 세대의 삶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무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고 지나다니는 거리의 교차로다. 교차로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온 길들이 만나 잠시 광장이 되고 광장은 각자의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이 모여 공유공간이 된다. 이곳은 차도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용 안전시설물들이 경계를 허물고 사람이 모여앉는 의자이며 테이블이 되는 곳이고 현실과 생각이 공존하는 사실적이지 않은 곳이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멈추어 서서 방향을 잃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의 삶들이 잠시 머물며 교차되는 곳이다. 교차로의 뒤편의 오래된 녹슨 벽엔 극 속 인물들을 그리고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듯 말들이 시가 되어 빛날 것이다.

무대디자인 박은혜



2020년에 김수영을 다시 읽는 일

이경수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는 20대의 우리와 어느새 50대가 되어버린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온다.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린 윤기 같은 친구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지만, 어느새 ‘꼰대’가 되어버린 586세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와 불화하거나 낡은 충고를 늘어놓기를 서슴지 않는 세대. 가슴속에는 젊은 날의 이상을 품고 살아 가지만, 이미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586 세대의 쓸쓸한 자화상이 여기 있다.



©김수영문학관

대학 시절, 대자보에서 종종 인용되던 김수영의 시는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고 물으며,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고 비겁하게 비켜서 있는 자신을 성찰하게 했었다. 50대가 되어서 다시 마주하는 김수영의 시는 20대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냐고 되묻는다. 그러므로 김수영의 시를 다시 읽는 일은 젊은 날의 자신을 대면하는 일이자 통증을 동반하는 일이다.

연극에 처음 등장하는 김수영의 시 「그 방을 생각하며」는 윤기가 마지막으로 읽은 시로 선택되었다. 4·19혁명이 김수영에게 어떤 의미였고 혁명의 열기가 식어 갈 무렵 그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보여주는 이 시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안 바꾸어 버렸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전의 방과 새로운 방이 대비되면서 시인이 떠난 이전의 방에 갇힌 것들과 지금의 방에 함께 있는 것들도 대비된다. 그 방의 벽에는 아직도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어둠을 지키고

있지만 시인은 혁명을 갈구하는 마음과 몸을 그 방에 다 두고 왔다. 그 방에 모든 노래를 다 두고 온 시인은 이제 녹슨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게 되었다. 열탕같이 끓어올랐던 혁명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그 방에 혁명의 기운이 갇혀 모두 잊힌 것은 아니다. 혁명이란 방을 바꾸듯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녹슨 펜과 광기, 실망의 가벼움까지도 재산으로 삼을 줄 아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일구어 가는 것임을 시인은 깨닫고 있었다.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의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 방에서 배운 것을 자양분 삼아 모든 것을 다 잃는 절망적 상황이 와도 한 발 한 발 역사의 시간을 살아갈 것임을 알기에 시인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진다. 절망이 깊을수록 역설적으로 뒤에 올 기쁨도 커진다. 마지막 순간에 윤기가 읽은 시가 이 시여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떠났지만, 혁명의 정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형진에게, 그리고 광화문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

「봄밤」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형진과 영미 부부의 모습과 겹치며 낭송된다. 이 무

렵의 김수영 시에는 피로나 피곤 같은 시어가 자주 등장한다. 시인은 어느 봄밤,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술에서 깨어난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달리 보일 법도 한데,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뜨는 지극히 평범해서 슬픈 생활인의 세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은 어찌면 살아가는 동안 내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고 시인은 넌지시 말한다.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두르려 들겠지만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고 “결코 서둘지” 않는다면 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 “영감(靈感)”이 찾아드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위로를 건넨다. 그것은 봄밤이 선사한 위무의 시간이자 언젠가는 찾아들 “나의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지친 모습의 준수에게 윤기가 건네고 싶은 위로의 말은 아니었을까.

「달나라의 장난」은 영미가 윤기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낭송된다. 생활에 치여 윤기의 기일도 잊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는 명해진 영미는 대학 신입생 때 동아리방에서 윤기와 함께 이 시를 읽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달나라의 장난」은 1953년 김수영

작품이해돕기 2

용어해설

정연: 플레시몹 하나 봐요. 와, 재밌겠다!
선생님, 저희도 같이해요.

▶플레시몹 Flash mob▶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날짜·시간·장소를 정한 뒤에 모인 다음, 약속된 행동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흩어지는 모임이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정연: 우리 선생님 민주화운동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셨대요. 영화 1987에 나오잖아요.

▶영화 <1987>▶ 2017년 개봉한 장준환 감독의 장편영화로, 1987년 6월 항쟁의 배경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열망한 대중의 이야기를 담았다.

형진: 정연씨는 졸업하고 NGO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던가?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기관이나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을 총칭하는 말로, '비(非)정부기구'나 '비(非)정부단체'라고도 지칭된다.

정연: 저... 비건인데요.

▶비건 Vegan▶ 동물을 착취해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채식주의자로 유제품과 달걀을 포함해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

영미: 배우다 말았네.
트랜스젠더, 에이젠더, 시스젠더, 젠더리스.

▶젠더 Gender▶ 사회적 의미의 성(섹스 sex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생물학적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하는 사회적 성별이 다른 경우

▶에이젠더 Agender▶ 성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

▶시스젠더 Cisgender▶ 자신이 사회에서 지정한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하다고 느끼는 사람

▶젠더리스 Genderless▶ 젠더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에이젠더는 현행 사회 구조 내에 존재하는 젠더를 거부하고 젠더를 갖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젠더리스는 현행 사회 구조의 젠더개념조차도 인식하거나 내면화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과 나이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패션의 새로운 경향을 말하기도 한다.

영미: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폰대소리 들어!

▶폰대▶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쓰인다.

현: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상이니 뭐니 말하는 건 무책임하단 얘기지.

▶등소평 鄧小平(1904-1997)▶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진 중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시장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파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중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다.

▶흑묘백묘론 黑貓白貓論▶ 1970년대 말부터 등소평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시형: 현이 논 좋겠다. 변증법적 유물론 책 몇 권 읽고 세상일의 순서와 원리를 훤히 알게 됐으니 얼마나 명쾌해! 그렇지만 마음의 원리도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변증법적 유물론 辯證法的唯物論 Dialectical materialism▶ 자연과 세계의 역사적 발전을 물질적 존재의 역사적 발전으로 해석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이다. 여기에서의 유물론은 추상적인 정신세계로부터 독립된 물질세계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객관적 실재성을 갖고 있다는 이론을 말하며, 변증법은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를 뜻한다.

시형: 우리 제 게바라 형님은 밀림 한복판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엄청 마음에 든다는 표정만 남았네.

▶체 게바라 Che Guevara(1928-1967)▶ 아르헨티나 출신의 쿠바 정치가·혁명가. 1955년 경 쿠바 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등을 만나 혁명에 가담하였고, 라틴아메리카 민족혁명을 위해 싸우다 볼리비아에서 사망하였다.

시형: 세상은 언제나 파가 있지! 우리 젊었을 때는 PD 파, NL파 요즘엔 적막파, 부먹파 더 나이 들면 그래도 약착같이 장수파, 뭐 그렇게까지 사나파.

▶PD파(민중민주파) People's Democracy▶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계로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며 평등파(平等派)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회 변혁 방법으로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르며 주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NL파(민족해방파) National Liberation▶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진보 운동권에 존재하는 정파이며 자주파(自主派)라고도 한다. PD는 NL에 비하여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결함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충실하다.

*출처: 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문학비평용어사전, 위키백과

이 포로수용소 생활에서 놓여나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던 시절에 쓴 시이다. “팽이가” 도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인은 그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고 말한다. 팽이가 도는 심상한 풍경마저 신기해 보였을 시인이 거기서 서러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이겠다. 이 시의 놀라움은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팽이를 발견하는 시선에 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서서 도는 팽이처럼 어찌하면 김수영은 시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 것이다. 윤기도 영미도 형진도 준수도, 그리고 우리도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한사코 서서 도는 팽이인지도 모른다.

「사랑의 변주곡」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 김수영이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마저 사랑처럼 들리고 강 건너 암흑에서도 사랑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은 “사랑의 기차”를 타고 변주되고 확장되어 나아간다.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온 것이다. 사랑-혁명의 의미는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에 비유된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는 당장은 한낱 씨앗에 불과

하지만 복숭아와 살구와 꽃감이라는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아들과 아들이 열어갈 미래와 연결된다.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말은 이 시에서 개인적 전언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후손들을 향해 남기는 예언적 말이 된다. 여전히 시민운동을 하며 광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진은 달라진 시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세상 앞에서 절망하지만, 이 시를 통해 관객들은 진정한 사랑-혁명은 미래의 시간에 완수될 것임을, “복사씨와 살구씨/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뛰 날이 올”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이 연극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씨앗 하나씩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도 “도시의 피로에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김수영 1921-1968

현대 문명과 현실을 비판하던 서정적 모더니스트에서 자유와 저항을 부르짖던 참여시 작가로, 모질고 격한 비바람 같았던 우리 역사와 함께 서서 시대와 함께 변모하고 고뇌했던 시인 김수영. 그는 떠났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삶과 현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수영문학관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삽입 시 목록

그 방을 생각하며(1960)

봄밤(1957)

달나라의 장난(1953)

사랑의 변주곡(1967)

작품이해돕기 3

대한민국 사회적 세대 구분

베이비붐세대 (1950년대 생)

한국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에 속하는 세대로 산업화가 시작되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전후세대’라고도 한다.

N86세대 (1960년대 생)

80년대에 대학생활을 보낸 60년대 생.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세대이면서 동시에 후대에 좋은 기회를 물려주지 못한 기득권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X세대 (1970년대 생)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컴퓨터 및 대중문화 등이 활발하게 보급되었다. 1994년에 처음 실시된 수능세대이고, 홍콩 영화에 열광하였으며 세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했다.

Y세대 (1980~1990년대 초 생)

밀레니얼세대라고도 하며 어린 시절 IMF 금융위기를 겪는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영향을 유년기부터 경험한 세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심한 경제난과 취업난이 이슈로 대두된다.

Z세대 (1990년 대 중반 이후 생)

인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첫 번째 세대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함으로써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다.

세대는 개인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있다.

작품 속 형진·윤기·영미·현·시형은 86세대, 준수·영훈·보수청년은 Y세대, 정연은 Z세대로 다음과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

구분	86세대	Y세대	Z세대	주요사건
1960년대	아동·유년기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때,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정변 1969년 삼성전자공업 창립, 3선 개헌안 변칙 통과
1970년대	10대			열심히 하면 ‘개천의 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험차게 살아간다. 1972년 제4공화국 수립(유신체제) 1974년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1979년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1980년대	20대	아동·유년기		군사정권의 핏물이 도사린 한 편,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몰려온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5공화국 시작 1981년 11대~12대 전두환 대통령 당선 1982년 야간통행금지 폐지(1945년 시행),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개통 1983년 세계 최초 휴대전화 출시(모토로라 사) 1986년 PC통신 개통 1987년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 6월 민주항쟁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
1990년대	30대	10대	아동·유년기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이하는 세상엔 설렘과 공포가 공존한다. 1991년 걸프전쟁 발발, UN 가입, 국내 최초 인터넷 게시판 개설 1992년 14대 김영삼 대통령 당선,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1994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1996년 OECD 가입 1997년 15대 김대중 대통령 당선, IMF 외환위기, 다음 ‘한메일’ 오픈 1998년 금모으기 운동 추진,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1999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장, 스타벅스 한국 착륙
2000년대	40대	20대	10대	스마트폰 등장, 손 안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2년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FIFA 한/일 월드컵 개최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기각 2005년 동성동본제 폐지 2007년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태안기름유출 사태 2008년 호주제 폐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서거, 신종 인플루엔자 A 유행 2009년 애플 아이폰 국내 발매
2010년대	50대	30대	20대	더 나은 시대를 위한 수많은 촛불이 광장에 수를 놓았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김정일 사망 2012년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5·26 남북정상회담 개최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영화 <기생충>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각본상·감독상 등 수상, 방탄소년단 빌보드 HOT 100 1위



연습 스케치

스태프 프로필

작 유혜울

프로필 3페이지

연출 이은준

프로필 5페이지

무대 박은혜

연극 <탈날라 하우스><떠있는 섬>
<꿈속에선 다정하였네><여왕과 나이트게일>
<엄마이야기><작은악사><황금용><고공정원>
<유쾌한 유형><대학살의 신> 외

조명 신동선

연극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FARM>
<조치원 해문이><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외

의상 오수현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줄리엣과 줄리엣>
<룩앤롤><페스트> 외

음악 박민수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인싸이드>
<만약 내가 진짜라면><페스트><누구세요> 외

분장 배운정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19 그리고 80>
<그 여자의 소설><불 좀 꺼주세요> 외
뮤지컬 <결혼><신혼무관> 외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시집가는 날>
<목계나루 아가씨> 외
창극 <나비아 청산도 가자> 외

소품 최혜진

연극 <레드><대학살의 신>
<나와 아버지와 흥매와><엄마를 부탁해> 외
뮤지컬 <마틸다><광화문연가><킹키부츠>
<보디가드><고스트><렌트> 외

음직임 금배섭

연극 <용선><구멍을 살펴라>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안숙선의 이야기 창극-두사랑><함익> 외
무용 <출판아무 솔로연작 1,2,3,4,5><나로서는>
<간 때문이야!><재생인간><궤도유지> 외
수상 2016 부산국제무용제 AK21 우수상
2015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공동수상)

음향 김병수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
국악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닭들의 꿈, 날다> 외

무대 보 손지희

연극 <B CLASS><오늘도 바람><아틀란티스>
뮤지컬 <최후진술><러브 행귀지>
무용 <무아삼일><경인><할>
창극 <나운규 아리랑>

조연을 조호동

조연을 데뷔
연극(배우) <베이비 박스><분노 하세요!>
<장유유서> 외

만드는 사람들

기술감독 신승호

무대감독 김정빈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장도희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이미현 최소영

조명오퍼레이터 정하영

의상진행 박희정

분장진행 조은혜

무대제작 쇼먼트

의상제작 메리엘

소품제작 더소품바이진

조명장비임차 파이어라이트

조명 프로그래머 홍주희

조명팀 광태준 김은빈 임영민

경주연 윤지영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소품팀 박정경 배희정 이은정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이송이

마케팅 변경원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조영채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7기

김가는 김현기 심하린 이화승
정예림 현석현

메인 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 디자인 Re01

홍보 사진 심주호

홍보 영상 247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물 인쇄 인타임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효진

매표 안내원 김인혜 권소담 어주희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김나래 이경선

하우스 안내원 정진영 이지은

이해조 이민경 임지은 송술

황지수 김성혜 송영은 배연준

김지수 박주은 송민경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기록 사진 이강물

기록 영상 미니멀랩 프로덕션

회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

운영진 심재찬 정명주

낭독회 진행 지영림

회곡집 기획·진행 조유림

회곡집 발간 도서출판 걷는사람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심소연

제작진행 박은경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김영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경영공시·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철순 심소연 정채영 박소영
이정민 지영림 프로듀서
박서영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이승이 최윤영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이경선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김태연 나혜민 무대감독
홍영진 경은주 이승수 무대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백혜원 김민주 김세희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권령아 연수단원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한나래 작품개발·학술
조유림 작품개발·출판
이지연 아카이브
손은정 청년인턴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2일 전 유선예약)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r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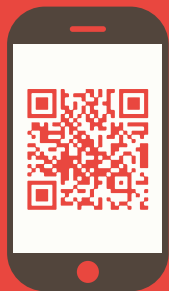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난 괜찮아.
벽을 두드려 깨다보면 문이 열리는 날이 있겠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